

<2022년 6월 4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사람은 뇌와 마음과 행실을 길들이는 대로 행하며 만족하고 살아간다.
2.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대로 뇌도 마음도 행실도 길들이며 살아야, 육도 영도 기쁘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된다.
3. 육신의 세계에서만 끝나는 행복이나, 영원까지 누리는 행복이나에 따라 그 삶이 좋은 삶인지 안 좋은 삶인지 판단된다.
4. 어떻게 해서 기쁘고 보람 있게 사느냐가 문제다. 생명이 없는 낙은 차라리 누리지 않는 것이 낫다.
5.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해야, 근본적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게 된다.
6.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기와 온전하게 쓰기다.
7.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어 놓고 써야, 쓰는 만큼 차원 높은 삶을 살게 된다.